

4월혁명과 북한 아동문학*

-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를 중심으로

이 순 옥**

차 례

I. 들머리	III. 아동문학집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의 성격과 의미
II. 4월 혁명문학의 창작 의도와 매체 환경	IV. 마무리

I. 들머리

북한문학사에서는 4월혁명을 ‘4월인민봉기’ 혹은 ‘4·19인민봉기’, ‘4·19봉기’로 규정하면서 미국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투쟁, 조국통일에 대한 남한 민중들의 열망을 표출한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관점은 통치체제와 기반이 김일성에서 김정일로 바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¹⁾ 그만큼 북한에서는 4월 혁명문학을 체제의 우월성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KRF-2005-075-A00075)

** 경남대학교 경남지역문제연구원 연구교수

1) “4월인민봉기는 지난 15년동안 미제와 이승만 괴뢰도당의 학정밑에서 쌓이고 쌓인 남조선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의 폭발이었으며 새 정치, 새 생활을 요구하는 남조선 인민들의 정당한 투쟁이었습니다.” 『조선문학사』 12(평양: 사회과학출판

을 강조하는 선전 수단으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점에서 남북한의 4월 혁명문학은 창작 환경과 매체 기반, 문학적 접근 방식과 성격, 창작 주체가 사뭇 다르다고 볼 수 있다.²⁾

그러나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고 있는 최근의 연구 동향을 감안할 때 4월 혁명문학에 대한 이해는 의외로 얽은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무엇보다도 당대의 문학사료를 폭넓게 접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다. 북한의 4월 혁명문학은 북한에서 발간된 『조선문학사』나 『현대조선시문학연구』 등의 문학사론에서 단편적으로 기술된 내용이나 『문학신문』이나 『조선문학』 등의 신문 잡지 매체에 수록된 작품을 통해 창작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만큼 북한의 4월 혁명문학 연구는 시작 단계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³⁾

4월혁명에 대한 북한의 첫 반응은 군중대회와 정당·사회단체의 회의에서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장 앞선 것이 1960년 4월 12일 마산의거를 지지하는 「告南朝鮮人民書」와 「給馬山市民的信」이며⁴⁾, 4월 22일에는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의 이름으로 「告南朝鮮人民書」⁵⁾, 그리고 이승만이 하야한 직후인 4월 27일에는 각 정당과 사

사, 1996), 224쪽.

- 2) 남한의 4월 혁명문학에 대해서는 이순욱,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5집, 한국문화회, 2007.4, 365~407쪽을 참고할 것.
- 3) 이순욱과 한정호, 김종희가 4월혁명의 전사로서 마산의거를 다룬 북한시를 처음으로 다루었다. 이순욱, 「마산의거시의 실증적 연구」, 『한국 근대문학과 경자년 3·15마산의거』(3·15의거 제46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3·15의거기념사업회, 2006.4.14), 9~27쪽; 한정호, 「북한 아동문학에 속에 나타난 경자년 마산의거」, 위의 책, 53~73쪽; 김종희, 「북한문학에 나타난 경자년 마산의거와 4월혁명」, 위의 책, 33~47쪽. 그리고 소설 쪽에서는 남상권의 연구가 유일하다. 남상권, 「북한관 4·19소재 소설의 대남인식」, 『한민족어문학』 제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12, 315~348쪽.
- 4) 「告南朝鮮人民書」(祖國統一民主主義戰線中央委員會); 「給馬山市民的信」(平壤市支持和聲援馬山市民反對李承晩法西斯統治而起義의 群衆大會, 1960년 4월 12일), 『南朝鮮人民憤怒의 火焰』, 평양: 외국문출판사, 1960.40, 44~52쪽.

회단체 지도자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聲明」을 채택하기에 이른다.⁶⁾ 조선작가동맹도 이 회의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북한문학계의 관심과 대응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동성 있는 『조선문학』⁷⁾과 『문학신문』⁸⁾ 등의 신문 잡지 매체를 통해 즉각적으로 드러났으며, 이후 단행본으로 발간되면서 4월 혁명문학의 성과를 갈무리하고 있다.

북한문학에서 4월 혁명문학의 생산과 재생산은 1960년대에 가장 폭넓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의 경우 4월혁명 첫해에 발행되었거나 제작된 영화, 혁명문학선집, 수기집, 소설집, 추모집, 투쟁사, 화보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4월혁명의 문학적 수용과 향유는 매우 폭넓게 이루어졌다.⁹⁾ 북한에서도 항쟁사¹⁰⁾뿐만 아니라 시, 소설, 희곡,

5) 위의 책, 5~18쪽.

6) 이 회의에 참가하여 성명서에 이름을 올린 정당과 단체는 “조선노동당, 북조선민주당, 천도교청우당, 민주독립당, 근로인민당, 건민회, 조선직업총동맹, 조선민주청년동맹, 조선민주여성동맹, 조선농민동맹, 조선기자동맹, 조선작가동맹, 조선작곡가동맹, 조선미술가동맹, 조선공업기술총연맹, 조선농림기술총연맹, 조선건축가동맹,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조선민주과학가협회, 조선불교도연맹, 산업건설협회, 남조선기독교연맹”이다. 「聲明」, 위의 책, 36~43쪽.

7) 백인준, 「그날밤에」(시); 정화천, 「싸워 이기라」(시)(이상 『조선문학』 1960.5); 이기영, 「투쟁의 기치를 더욱 높이라」(정론); 리맥, 「어머니들이여 싸우러 나아갑시다」(시); 한윤호, 「원썬들은 대낮에 음모를 꾸민다」(시); 류란산(중국); 「산악들도 분노에 떠다 싸우는 남반부 인민들에게」(시); 한설야, 「우리 문학에서 혁신이 요구된다」(좌담 답변); 신고송, 「이 편지를 꼭 전하고 싶다」(수필)(이상 『조선문학』 1960.6); 송영, 「분노의 하산은 터졌다」(희곡) 등을 수록하고 있다.

8) 대표적인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리상현,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을 더 많이 형상화하자」, 1960.4.19; 한설야, 「남조선 작가, 예술인들이여 정의로운 투쟁의 선두에서라」, 1960.4.29; 백인준, 「속지 말라! 남조선 형제들이여!-모든 불행의 화근을 뿌리채 뽑아 없애라!」, 1960.4.29; 강효순, 「미제를 물러가게 하라-모든 불행의 화근을 뿌리채 뽑아 없애라!」(정론), 1960.4.29; 「속지 말라! 남조선 형제들이여!-모든 불행의 화근을 뿌리채 뽑아 없애라!」, 1960.4.29; 신고송, 「이 밖에 다른 길은 없다-모든 불행의 화근을 뿌리채 뽑아 없애라!」, 1960.4.29; 김하명, 「남조선 문학에 반영된 리승만 반통통치의 파멸상」, 1960.5.3. 김성수, 엮음, 『북한 『문학신문』 기사목록(1956~1993)』, 한림대 아시아문화연구소, 1994, 149~151쪽.

아동문학, 정론, 오체르크, 수필 등의 다양한 갈래에 걸쳐 4월 혁명문학을 생산하고 있다. 김상오의 「마산이여, 우리는 너와 함께!」, 한진식의 「투쟁의 불길 더욱 높이라 마산 인민들에게」(이상 『문학신문』 1960.4.15.), 백인준의 「그날 밤에」, 정하천의 「싸워 이기라」(이상 『조선문학』 1960.5) 등이 4월혁명의 열기가 가장 드높았던 시기의 작품들이다.¹¹⁾

그러나 최근의 연구¹²⁾에서도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조선문학』이나 『문학신문』 등 익숙하게 알려진 신문 잡지 매체에 수록된 작품만으로 북한의 4월 혁명문학의 성격을 전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일이다. 앞으로 인민학교 교과서, 『아동문학』과 『청년문학』 등의 잡지 매체뿐만 아니라 단행본 시집 매체까지 연구 대상을 확대할 때, 북한의 4월 혁명문학이 갖는 특수성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으리라 본다.¹³⁾

이 글은 ‘4월 인민봉기’를 노래한 아동문학집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를 주된 대상으로 삼아 북한의 아동문학에 나타난 4월혁명의 성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대상을 아동문학에 한정된 까닭은

9) 이순욱,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앞의 책, 365~407쪽을 참고할 것.

10) 4월혁명만을 독자적으로 다룬 것으로는 전필수의 『현 시기 남조선 인민 투쟁과 그 특징』(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61.7)과 『애국의 피로 물든 4월의 광장』(평양: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출판사, 1965.9)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남조선 학생운동』(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4.5)과 『전후 남조선청년학생운동』(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현대사연구실,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7.11)에서도 각각 4장과 2장, 3장에서 4월혁명을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

11) 대체로 4월혁명 초기에는 첨예한 대립 구도를 설정해 놓고 항쟁주체들의 분노와 조국통일에 대한 강렬한 신념을 격정적인 어조로 형상화했다면, 이후에는 혁명정신을 계승하여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12) 김중희, 「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와 4월혁명」,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4, 5~25쪽.

13) 1차 문학사료의 확보 못지않게 북한문학에 관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마련하는 일도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사를 검토해 보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듯이, 북한 체제의 특수성을 인정하는 관점에서 북한문학을 바라보는 내재적 방법이나 우리의 관점을 중시하는 외재적 방법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해석의 과잉을 필연적으로 동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혁명의 미래를 위해 아동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한 김일성의 교시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성인문학보다는 아동문학이 당의 문예정책을 보다 확고하게 실천하고 있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또한 이 작품집은 현재 확인할 수 있는바, 4월혁명을 형상화한 유일한 혁명문학 작품집으로서 신문 잡지 매체에 발표되고 향유된 작품과는 달리 제도교육의 차원에서 철저하게 기획된 교육용 도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통해 4월혁명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태도, 북한의 학교 교육과 문학 교육의 지향점, 사상교육의 수단으로서 아동문학의 위상을 구체적으로 해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에 따라 4월 혁명문학의 창작 의도와 매체 환경을 구체적으로 점검한 뒤, 아동문학집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의 성격과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4월 혁명문학의 창작 의도와 매체 환경

북한문학사에서 1960년대는 1967년 주체사상의 확립과 더불어 사회주의 체제를 완성했다는 점에서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특히 1960년대 전반기는 문학사에서 ‘사회주의의 전면적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투쟁 시기’(1960~1967)로 기술되는, 이른바 천리마 시대의 문학에 해당한다. “천리마의 기상으로 들끓는 장엄한 현실”이 “시문학에 새로운 시대정신의 나래를 달아 주었다”¹⁴⁾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시기의 문학은 천리마 운동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하는 방향을 강조하면서 사회주의 건설을 앞당기고자 했다. 그것이 국가적 차원에서 강조된 이 시기의 ‘새로운 시대정신’이었다. 이처럼 천리마 시대의 문학 문학은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천리마 기수들의 삶을 반영함으로써 공산주의적 인간형을 창조하는 데 주력하였다.

14) 박종원·류 만, 『조선문학개관』 II, 사회과학출판사, 1986, 251쪽.

그런 가운데 4월혁명이 발생한 이후에는 남한 인민의 혁명 투쟁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 반미주의의 형상화를 적극적으로 요구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 전반기 북한문학에서는 4월혁명을 계기로 반남한·반미의 극점을 보여주는 사상 교양적 기능이 어느 때보다도 강조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작가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조된 ‘중요한 요구’였다.

(1) 최근 남반부 정세와 관련해서 수상 동지는 문학예술 분야에서 혁신이 요구되며 기동성이 요구된다는 것을 강조하시었다. 남조선 정세를 더 연구해서 이 투쟁을 매개 작가들이 작품으로 형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앞으로 반드시 남북이 교류하게 되는데 그 때 남반부 인민들이 자기들의 투쟁, 자기들의 생활 기록을 요구할 것이 사실이다. 남조선 생활에 대하여 더 연구하고 더 많이 쓰자.

전 세계 피압박 인민들의 커다란 고무로 된 남조선 인민들의 영웅적 봉기를 작품의 테마로 하는 것은 우리 작가들에게 있어 아주 신성한 지상 과업이다. 물론 지금까지도 남조선 문제를 취급한 작품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것은 봉기 전 작품이다. 때문에 봉기 후 새 환경에 조응하는 작품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¹⁵⁾

(2) 이 시기 민족 최대의 숙원인 조국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남반부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그리는 것은 문학예술 앞에 나선 중요한 요구였다. 그것은 이 주제의 작품들이 남반부 인민들과 혁명가들을 교양하고 그들에게 혁명 투쟁의 방법과 경험을 가르쳐 주는 데 절실히 필요할 뿐 아니라 공화국 북반부 인민들을 남조선 혁명을 지원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 정신으로 교양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¹⁶⁾

(1)에서 보듯이 4월혁명을 형상화하는 것은 작가들의 “신성한 지상 과

15) 편집부와의 좌담(5.12)에서 한설아의 답변, 『우리 문학에서 혁신이 요구된다』, 『조선문학』 1960년 6월호(154호), 6쪽.

16) 김일성종합대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선 천리마 시대의 문학』, 『조선문학사』 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271쪽.

업”이자 “의무”이다. 한설야는 답변에서 작가에게 제기되는 과업으로 “남조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작품을 쓰자”, “남조선의 영웅적 투쟁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자”, “조국 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노동자의 모습을 진실하게 그리자. 사실주의가 요구하는 아주 진실한, 아주 매력 있는 작품을 쓰자”, “박력 있는 것을 쓰라”, “결정적으로 좋은 작품을 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¹⁷⁾ 이러한 혁신 요구 가운데 “제 1차적인 테마”는 “남조선의 영웅 서사시”이므로 “오늘부터 쓰고 또 써야 한다”¹⁸⁾는 점을 강조했다. 이것이 지향하는 바는 (2)에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4월 혁명문학은 “남반부 인민들과 혁명가들을 교양”하고 “투쟁의 방법과 경험”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남조선 혁명을 지원”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 정신”으로 북한 인민들을 “교양”하는 데 각별한 의의를 가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4월 혁명문학은 교양적 성격을 과도하게 내포할 수밖에 없다.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창작된 4월 혁명문학은 대체로 시에 편중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처럼 갈래의 편향성이 두드러지는 셈이다. 물론 4월 혁명문학의 생산과 향유가 소설, 희곡¹⁹⁾, 정론²⁰⁾, 오체르크, 동시, 아동극, 아동소설, 영화문학²¹⁾ 등의 다양한 갈래에 걸쳐 이루어지

17) 편집부와의 좌담(5.12)에서 한설야의 답변, 앞의 글, 6~7쪽.

18) 위의 글, 9쪽.

19) 송영의 『분노의 화산은 터졌다』(2장, 1960)와 지재룡의 『푸른 잔디』(4막 6장, 1965)가 대표적이다. 전자는 김주열의 희생에 계기로 분노의 화산이 터져 올라 투쟁이 전개된 상황을, 후자는 ‘4.19인민봉기’ 이후 더욱 심화된 남한 청년학생들의 조국통일과 사회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형상화하고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선 천리마 시대의 문학』, 위의 책, 278~279쪽.

20) 한설야, 『우리 문학에서 혁신이 요구된다』, 『조선문학』 1960.6; 리기영, 『투쟁의 가치를 더욱 높이라!』, 『조선문학』 1960.6; 한성, 『끝낼 수 없는 분노』, 『조선문학』 1960.7; 강효순, 『미제를 물러가게 하라』, 『문학신문』 1960.4.29; 백인준, 『미제를 물러가게 하라』, 『문학신문』 1960.4.29; 신고송, 『이 밖에 다른 길은 없다』, 『문학신문』 1960.4.29; 황철, 『새로운 터전을 가꾸기 위하여』, 『문학신문』 1960.4.29 등을 들 수 있다.

고 있다는 점도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남한의 4월 혁명문학과 사뭇 다른 점은 창작 주체가 주로 전문 작가들이며, 아동문학에 대한 비중이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한의 문학예술이 당의 문예정책과 이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인민 교양, 특히 아동의 사상 교양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는 당시 북한 아동문학의 교육적 기능과 지향점을 엿볼 수 있는 4월혁명 문학작품집이다. 여기에는 시 8편, 소설 1편, 오체르크 1편, 아동극 1편, 희곡 1편이 실려 있다. 비슷한 시기에 발간된 ‘당 창건 15주년 기념 동시집’ 『당에 드리는 노래』도 아동에 대한 계몽적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작품집이다.²²⁾ 이찬의 「행복」과 류연옥의 「우리들의 마음도 날개쳐 간다」 등이 4월혁명을 형상화한 작품들이다.

그렇다. 맘만 있다면 두 가지 뿐이라
 사람마다 온갖 재능 맘껏 나래치게
 넓은 길 갈수록 더 넓혀주는
 이 좋은 사회 이 따사로운 당의 품안에서
 (가운데 줄임)

바로 오늘 남녘 땅 어린이들도
 그 같은 운명, 그 같은 설음

-
- 21) 대표적인 작품이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남한 인민들과 청년 학생들의 투쟁을 형상화한 백인준의 「성장의 길에서」(1965)이다. 이 영화는 “4.19인민봉기로부터 6.3투쟁에 이르는 남조선 인민들의 양양된 반미구국 투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하여 남조선 혁명의 필연성과 전략 전술적 방침을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투쟁 속에서 자라나는 남조선 혁명 력량의 장성 과정을 폭넓고 깊이 있게 그린 의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김일성종합대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선 천리마 시대의 문학」, 위의 책, 274~278쪽.
- 22) 특징적인 것은 판권지에 ‘중학교 기술학교 학생용’(『남녘땅에 기'발 날린다』), ‘인민, 초중 학생용’(『당에 드리는 노래』)이라 대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작품집은 학교 제도 안에서 이루어진 문학교육용 교재일 가능성이 높다.

참다 못해 땅크까지 맞받아 나아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고 행복하나 너희들은

감격어린 목소리로

《고운 비단으로 어서 해 주구려 했더니》

들의 얼굴에 활짝 피는 웃음꽃

웃음꽃 핀 두 볼이 얼싸 안고 부비네.

- 리 찬, 『행복』 가운데서²³⁾

창작일자를 1960년 5월로 밝히고 있는 인용시는 김일성 체제의 옹호를 옹호하고 반남한적 정서를 강조하는 사상 교양적 성격이 강하다. 이는 엄마의 입을 빌어 “무용”을 한다고 “조선 옷”을 해 달라는 막내딸의 요구에 화자는 “다사로운 당의 품안”에서는 “온갖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화전민의 아들로 태어나 “배움은 고사하고” “풀 뿌리 캐다 그만 쓰러까지 지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남한의 현실과 동일시한다. 이를 통해 북한과 남한의 현실을 대비시킴으로써 북한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북한문학이 선전 도구로서의 체제 이데올로기를 과도하게 강조한다고 보면, 아동문학 또한 이러한 성격과 무관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학교는 문학을 매개로 당의 정책과 이념을 지배적으로 선전하는 제도이다. 헌법 43조에서 보듯이 북한의 교육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양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체제 교육의 장이었던 학교 제도 안쪽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개발하고 선전할 필요가 있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바로 문학이었다. 따라서 교과서의 편제와 이에 따른 문학작품의 창작과 유통, 향유는 사회주의 교육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다.

23) 『당에 드리는 노래』, 아동도서출판사, 1960.9.30, 81쪽.

이러한 문학교육이 지향하는 바는 지식 교양, 공산주의 도덕 교양, 계급 교양을 강조함으로써 아동들을 체제에 충실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창조하는 데 있다. 아동문학은 체제가 강조하는 당성, 노동계급성, 인민성을 관철시키고, 이러한 이념을 내면화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아동문학은 아동의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라고 볼 수 있겠다.

북한에서 4월 혁명문학의 주요한 창작 환경은 당이 장악하고 있는 신문 매체이다. 혁명문학의 즉각적인 생산과 향유를 가능하게 했던 신문 매체는 작가와 인민대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소통의 신속성을 고려할 때 당의 요구와 의도를 수렴하고 합치시키는 데 가장 손쉬운 매체였다. 그리고 잡지와 단행본 시집 매체 또한 4월 혁명문학의 주요한 창작 환경을 제공하였는데, 특히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월간 『조선문학』과 주간 『문학신문』은 혁명문학의 생산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잡지매체이다. 『조선문학』에는 1960년 5월호부터 백인준, 정하천, 이맥, 한운호, 전초민, 신고송, 한설야, 이기영, 송영, 김광현, 김귀련, 이찬, 한성, 김상오, 박세영, 일심, 신진순 등이, 『문학신문』에는 엄홍섭, 강효순, 한진식, 이상현, 김상오, 백인준, 신고송, 한설야, 황철, 김하명, 남시우, 이근영, 류기찬 등이 다양한 갈래에 걸쳐 4월 혁명문학의 속살을 두텁게 했다.²⁴⁾ 단행본의 경우에는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나 『당에 드리는 노래』 등을 제외하고는, 작가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공동으로 작품집을 발간하면서 4월혁명의 문학적 성과를 갈무리하고 있다.²⁵⁾

24) 이들 매체에 발표된 4월 혁명문학의 창작 현황에 대해서는 이순옥, 『남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의 실증적 연구』, 『영주어문』 제12집, 영주어문학회, 2006.8, 284~285쪽을 참고할 것.

25) 혁명 초기 4월혁명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는 석광희의 『소년 영웅』(1960.4.20)은 『결전의 길로』(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에, 창작일자가 1960년 4월로 기록되어 있는 전초민의 『소년의 꿈을 찾아주라』는 『건설의 나날』(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에 다시 수록되었다. 이들 작품이 개인 시집에 갈무리되었다면, 류연옥의 『우리들의 마음도 날개쳐 간다』는 공동 작품집인 『남

이처럼 북한의 4월 혁명문학은 당의 정책과 이념을 구현하고 있어 교조적인 성격이 다분하다. 반남한·반미주의, 조국통일의 지향을 중점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인민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Ⅲ. 아동문학집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의 성격과 의미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는 유년기, 소년기 어린이들과 청년기로 넘어가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 제도 안에서 펴낸 작품집이다.²⁶⁾ 이 책은 1960년 당시 북한에서 발행된 유일한 4월혁명 아동문학집이다. 1960년 9월 10일 교육도서 인쇄공장에서 인쇄하였고, 같은 달 15일 아동도서출판사에서 발행하였다. 표지는 채용찬, 삽화는 최광, 편집은 유희준이 맡았다. 판권에 ‘중학교 기술학교 학생용’이라 밝히고 있어 북한 아동들의 정치 사회화를 겨냥한 문학교육 텍스트임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아동문학이 수용자층으로 성인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작품집은 다분히 교육적인 목적을 지니고 전략적으로 발간한 책인 셈이다. 따라서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는 남한의 4월혁명을 다룬 작품을 의무적으로 쓸 것을 강조한 북한 문학계의 요구를 고스란히 수용한 아동교육담론으로 볼 수 있겠다.²⁷⁾

체제 형성 초기부터 갈래의 형성과 확장이 두드러졌던 북한 아동문학의 특징을 반영하듯이, 이 작품집에는 동시와 단편소설, 오체르크, 아동극, 희곡을 수록하고 있다. 작품의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녘땅에 기'발 날린다』와 『당에 드리는 노래』(아동도서출판사, 1960.9.30)에 거듭 수록되었다.

26) ‘인민, 초등 학생용’으로 발간한 동시집 『당에 드리는 노래』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27) 편집부와의 좌담(5.12)에서 한설야의 답변, 앞의 글, 6~7쪽.

	작 가	작품 제목	갈 래	비 고
1	석광희	김 주렬	시	1960.5.8.
2	류연옥	우리들의 마음도 날개쳐 간다	시	
3	김경태	달려 가고 싶구나 한달음에	시	1960.4.
4	우봉준	원썩들이 떨고 있다	시	
5	백 하	프랑카드로 총구를 밀고 나가자	시	
6	김동전	싸우라 내 아들이	시	
7	윤복진	어린 너희들도 나섰구나	시	1960.4.25.
8	최석승	더 힘차게 일어 나라	시	1960.6.
9	원도홍	어머니와 아들	소설	1960.5.
10	조병조	리승만의 목을 때던 날	오체르크	
11	최복선	분노의 해'불	아동극	
12	김갑석	남녘 땅에 기'발 날린다	희곡	1960.4.20.

우선, 이 작품집에서는 북한의 4월 혁명문학에서는 남북한 체제의 대비를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과도하게 강조하고 있다. 이는 “공화국 북반부의 사회주의 제도와의 대비 속에서 남조선 사회의 반인민적이고 반동적인 본질을 예리하게 폭로”²⁸⁾해야 한다는 천리마 시대의 문학 주제와 일치하는 것이다.

(1) 우리들의 마음은
 힘차게 날개쳐 간다
 굽주리고 헐벗고 불쌍히 살아 온
 그러나 용감히 일어 나 싸우는
 남녘 땅 동무들이여!

동무들이 원하는 모든 것
 여기 북녘 땅에 마련되고 있거니
 이 행복 우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우리의 마음 날개쳐 간다

- 류연옥, 「우리들의 마음도 날개쳐 간다」, 가운데서²⁹⁾

28) 김일성종합대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전면적 개화기에 들어선 천리마 시대의 문학」, 앞의 책, 272쪽.

(2) 빼앗긴 자유
 짓밟힌 권리
 되찾아 내는 그날까지
 우리는 놓지 않으리라 놓지 않으리라
 틀어 권 항쟁의 기발
 높이 추켜 든 판가리 싸움의 화'불

행복이 꽃피는 북반부처럼
 우리도 나래 펴고 떳떳이 살고 싶어
 아버지도 할머니도 형님도 나도
 어깨 걸고 나섰다 항쟁의 거리
 원쑤의 발'굽 밑에 몸부림치던 거리.
 - 우봉준, 『원쑤들이 떨고 있다』 가운데서³⁰⁾

(3) **란 희** 생각을 하면 굶아 먹어두 시원치 않을 놈들이야. 정말 이번엔 이놈들을 깡그리 잡아 치우구 이 썩어빠진 정권을 뒤집어엎어야 해.

태 영 암 그래야 우리들도 북조선 아이들처럼 공부할 수 있어, 저기 좀 봐라! (두 학생 창밖을 내다 본다) 정말 신난다.

란 희 료원의 불'길처럼 불타라! 모두 일어나라!

△ 만세 소리

- 김갑석, 『남녘 땅에 기'발 날린다』 가운데서³¹⁾

인용시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북한 체제는 “행복이 꽃피는”, “원하는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는 곳으로, 그야말로 “사회주의 락원”(최석승, 『더 힘차게 일어나라』)으로 묘사된다. 이들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극단적인 대립 구도를 설정하고 갈등을 첨예하게 형상화하고 있다. (1)이 북한 아동의 시각에서 4월혁명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2)와 (3)은 북한

29)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 아동도서출판사, 1960.9.15, 7~8쪽.

30) 위의 책, 14쪽.

31) 위의 책, 76쪽.

체제를 동경하는 남한 학생들의 시선을 통해 북한 체제의 우월을 강조하는 있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특히 남한의 어느 소도시를 배경으로 삼은 (3)은 태영과 란희 학생이 시장인 허가를 찾아 시청의 시장 사무실을 뒤흔드는 장면으로 극이 시작된다. 이들은 시장이 도망을 갔다 생각하며 서류함에서 돈뭉치와 극비서류를 챙기던 도중 자신의 신분을 속이고 나타난 시장을 만나게 된다. 그러다가 시장을 알아 본 태영은 영란, 란희와 함께 그를 앞세우고 시위 대열로 나아가면서 막이 내린다. “새 정권을 세울 때까지”, “자유의 기발이 휘날릴 때까지” 싸우겠다는 세 학생은 “속임수”나 “얼리움”, “총칼의 위협”(「원썬들이 떨고 있다」)에도 죽음을 무릅쓰고 혁명 대열에 나선 인물이다. 이러한 인물은 “자유”와 “권리”를 위해 헌신함으로써 영웅적 지위로 격상된다. 천리마 시대의 북한문학이 추구한 대중적 영웅주의의 전형형을 보여주는 인물들인 셈이다. 이러한 인물형을 창조함으로써 아동들은 “당과 수령,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적인 인간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창조’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북한의 아동문학 교육이 지향하는 바다.

둘째, 이 작품집은 반미주의와 함께 남한의 부정부패, 계급갈등을 폭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견고한 적대자는 미제국주의이다. 미제국주의는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최대의 걸림돌이다. 이들은 대체로 반동적이며 추악한 대상으로 격하된다. “미국 승냥이놈들 몰아내야 한다” 혹은 “미국놈은 당장 물러가라!”(우봉준, 「원썬들이 떨고 있다」)는 선전적인 구호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미국은 가장 부정적인 배제의 대상이다. 그것은 미제국주의의 본질에 대한 자각을 통해서만 4월혁명이 목적으로 삼은 혁명과 조국통일을 선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에 대한 비판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쳐 있고, 증오와 분노의 차원에서 적대 세력에 대한 감정 고양 이상의 의미를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1) 월사금 사친회비 못 낸다 해서
 학교에서 내 쫓는 원썬놈들
 미국놈의 종이 되라 가르치는
 원썬놈들과 싸우는 남녘 땅 동무들이...
 - 최석승, 「더 힘차게 일어 나라」 가운데서³²⁾

(2) 돈 있고, 또 미국놈, 리 승만에게 조금이라도 곱게 뵈는 놈의 자식은 살인사건, 따기군이건, 락제꾸러기건 가리지 않고 모조리 합격되고, 돈 없고 권세 없는 집 애들은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시험을 잘 쳤어도 말끔히 떨어져 있었다. 영호는 설음이 복받쳐 올라 견딜 수가 없었다. 아직 《구구》도 제대로 못 따로 외는 놈의 새끼들이, 더욱이 첫 번 시험부터 마지막까지 모조리 백지로 낸 살인 강도 동팔이, 따기군 백형이까지 빼졌이 합격된 데 대해서는 가만 있을 수가 없었다.

- 원도홍, 「어머니와 아들」 가운데서³³⁾

(3) 10여 년간 미제의 앞잡이로서 나라와 민족을 팔며 인민들을 다치는 대로 잡아 죽이며 그들을 무권리와 빈궁의 도탄 속에 몰아넣은 리 승만! 이 원썬의 죄상을 어찌 용서할 수 있으랴!

- 조병조, 「리승만의 목을 때던 날」 가운데서³⁴⁾

(4) 어찌 한발'자국 사이에 둔 너희들만이
 한 조국 땅에서 즐겨야 할 너희들만이
 자유를 뺏기고 암흑땅에 살아야 한단 말이나?
 미국놈의 총칼에 쓰러져야 한단 말이나?

안 된다! 더는 못 참는다!
 내 고향 남녘 땅 동무들이!
 생각해두 치가 떨리는 미국 승냥이놈들
 하루 속히 몰아 내야 한다! 몰아 내야 한다!

32) 앞의 책, 23쪽.

33) 위의 책, 33쪽.

34) 위의 책, 52쪽.

빼앗긴 행복 다시 안겨 줄 평화 통일
평화 통일 앞당기기 위하여
더 힘차게 일어 나야 한다!
미국놈들 쫓겨 가는 날까지 싸워 이겨야 한다!

- 최석승, 『더 힘차게 일어나라』 가운데서³⁵⁾

인용시들은 무산자 아동들이 삶 속에서 직접 겪는 교육 불평등과 노동자 계급의 생활고를 계급 갈등으로 전면화함으로써 남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말살하는 권력 집단과 미제국주의에 대한 저항적 의미로 증폭된다. 이처럼 북한의 아동문학이 반남한·반미주의를 노골화하고 남한의 사회현실을 비판적으로 형상화하는 까닭은 지속적이고 명시적인 형태로 체제 이데올로기를 각인 시킴으로써 아동들을 체제 속에 안주시키려는 데 있다. 당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학을 매개로 한 이러한 정치사상교육의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이 작품집에서 형상화되는 남한의 항쟁 주체들은 대중적 영웅으로 부각되고 있는데, 천리마 형상을 강조했던 시기의 ‘천리마 기수’에 해당하는 인물들이다. 사상운동으로서의 천리마 운동은 남한의 권력계층과 미국에 맞서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사상, 기술, 문화적 차원에서 혁명을 선취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이다. 따라서 영웅적 투쟁의 인물상을 형상화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여겨진다.³⁶⁾

35) 위의 책, 23~24쪽.

36) 김일성은 1960년 11월 27일 ‘천리마 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는 담화를 통해 문학예술이 인민의 생활에서 뒤떨어져 있으며 그들의 요구에 따라가지 못하는 원인을 세 가지로 분석하였다. 즉 작가와 예술인들이 당의 정책을 체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민들의 생활 속에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으며, 이 부문에 대한 지도 사업이 잘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과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문학대사전』 4, 사회과학출판사, 1999, 25~26쪽.

애젊은 가슴을 사정도 없이
 저주할 원쑤의 총탄이 뚫었으니
 어찌 눈 감을 수 있었더나
 아니다 김 주렬아...
 너는 죽지 않았다
 타번지던 네 눈길은
 노도처럼 밀려 가는 항쟁의 대렬
 수만의 눈길 속에 담겨졌구나...
 굳게 틀어 쥐었던 네 주먹
 삼천만의 주먹과 함께 하늘을 찌르누나...
 네 가슴에 치솟던 불'길
 겨레의 가슴 속에 옮겨졌구나...

우리의 동갑이 김 주렬 동무야
 너는 항쟁의 선두에서 나아 가누나...
 마치 당꼬의 심장이 비치는
 거룩한 화'불 되어 성스러운 불'길 되어
 인민의 어깨에 실려 나아 가누나!
 어머니와 함께
 어린 누이 동생과 함께
 우리 동갑이들과 함께
 삼천만 동포와 함께
 그렇듯 뜨거운 가슴을 벌리고
 그렇듯 자랑 높은 머리를 쳐들고
 승리의 날 동트는 새벽을 향해
 발'걸음도 굳세게 나아 가누나!
 전설의 동상되어 나아 가누나!
 - 석광희, 『김 주렬』 가운데서³⁷⁾

북한의 4월 혁명문학에서 김주렬의 영웅적 투쟁과 죽음을 다룬 시편들은 적지 않은 편이다.³⁸⁾ 인용시는 인민을 위하여 심장을 바친 청년 영

37) 앞의 책, 4~5쪽.

용 “당꼬”와 같이 김주열의 영웅적 투쟁과 죽음의 의의를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통해 혁명정신의 영속성을 강조함으로써 “승리의 날 동트는 새벽”을 이끌어 내려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김주열이 “항쟁의 선두에서 나아가” 희생된 까닭이 “판자’집”과 “비 새는 천막 속 글’방”이 아니라 “햇빛 홀러드는 학교”, “삼천만이 갈망하는/ 조국의 평화 통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마산의거뿐만 아니라 4월혁명에서 김주열의 죽음이 지니는 무게와 상징성을 감안할 때, 북한 문학에서 김주열을 영웅의 전형으로 격상시켜 지속적으로 강조한 까닭은 역시 아동들의 사상 교육에 있다고 여겨진다.

이 시기의 문학이 대중적 영웅주의를 바탕으로 공산주의적 인간형의 창조에 힘을 주려하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김주열은 이른바 ‘조국해방 전쟁시기’ 인민군 용사들과 이 시기 천리마 기수의 형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를 통해 남한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성과 대중적 영웅주의를 강조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미국과 남한 정권에 대한 적의를 고취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적 영웅주의는 1960년대 전반기 북한 문학예술에서 뚜렷한 흐름을 형성하는 주제라고 볼 수 있겠다.

넷째, 혁명정신을 고양하고 미국과 남한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려는 목적의식이 강하게 작용한 까닭에 ‘언어 형상법’에 따라 비속어를 두드러지게 채용하고 있다.

우리를 교실에서 내쫓아 헐벗긴 자

-
- 38) 인용시와 함께 김주열을 제재로 삼은 시는 이택의 「어머니들이여 싸우러 나아갑시다」(『조선문학』, 1960.6)과 전초민의 「소년의 꿈을 찾아 주라」(『건설의 나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1.5)가 대표적이다. 이를 통해 4월혁명의 도화선으로 작용했던 마산의거에 대한 인식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혁명의 성소로서 마산과 마산 시민들의 투쟁을 노래한 김상오의 「마산이여, 우리는 너와 함께!」(『문학신문』, 1960.4)와 신진순의 「마산은 행진한다」(1960.4)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만큼 마산의거는 4월 혁명문학의 소재적 원천으로서 또는 영웅 담론의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는 셈이다.

어린 피를 빨아 《공납금》 처먹는 자
미국놈의 줄개를 짓밟고 나가리라.

- 백 하, 『프랑카드로 총구를 밀고 나가자』 가운데서³⁹⁾

인용시에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러한 언어 구성은 아동들에게 김일성의 교시를 구체적으로 내면화되고 혁명적 이념과 사상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썬놈”, “미국놈의 줄개를 짓밟고 나가리라”, “리승만 파썬 통치 송두리 채 뽑아 치우라”, “생각두새 치가 떨리는 미국 승냥이 놈들/ 몰아내야 한다”, “저놈들을 막 깔아 놓혀라”, “원썬을 겨누어 도끼’날이 번뜩인다”, “네놈들을 요정 널 북썬의 날창”, “간부놈”, “개놈 새끼들”, “개싸움” 등도 작품집의 곳곳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예들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4월혁명을 노래한 아동문학은 혁명과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선전 선동의 전략으로서 채택되었다. 이를 통해 북한의 아동문학은 아동들에게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가 남한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를 학습시킴으로써 북한 체제의 이데올로기에 적극적으로 동화되도록 유도하는 정치사상교육의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IV. 마무리

이 글은 4월혁명에 대한 북한문학의 접근방식, 창작 의도와 매체 환경, 북한의 아동 교육과 문학 교육의 지향점, 그리고 사상교육의 수단으로서 아동문학의 위상을 점검하기 위해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의 성격과 특징을 살피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는 북한문학이 아동문학을 통해 지향

39) 위의 책, 14쪽.

했던 대내외적 전략, 즉 문학과 정치의 관계 양상에 대한 해명이기도 하다. 논의한 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북한문학사에서 천리마 시대의 문학에 해당하는 1960년대 전반기는 작가들에게 사회주의 제도의 수립, 천리마 운동의 현실적 특성 반영, 남한 인민과 혁명가들의 투쟁 형상화, 조국통일의 사상적 지향을 형상화하도록 요구했던 시기이다. 특히, 남한 인민의 혁명 투쟁과 이승만 정권에 대한 비판, 반미주의의 형상화가 보다 적극적으로 요구되었다. 4월혁명을 계기로 반남한·반미의 극점을 보여주는 사상 교양적 기능이 강조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4월 혁명문학의 생산은 작가들에게 의무적으로 강조된 과업이었다. 왜냐하면 4월 혁명문학이 남한 인민들과 혁명가들의 투쟁을 지원하고 북한 인민들의 사상 교양을 강화함으로써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문학사에서 4월 혁명문학의 생산과 향유는 1960년대 전반기에 가장 폭넓게 이루어졌다. 우리와 달리 창작 주체가 전문작가 중심이며, 아동문학에 대한 비중이 높다는 점은 특징적인 현상이었다. 아동문학을 각별히 강조한 까닭은 문학을 통해 아동들에게 당의 문예정책과 이념을 적극적으로 내면화함으로써 아동의 사상 교양에 강조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지식 교양, 공산주의 도덕 교양, 계급 교양을 강조함으로써 아동들을 체제에 충실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창조하고자 했다. 따라서 4월혁명을 노래한 북한의 아동문학은 아동의 정치사상교육을 실시하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로 기능하였던 것이다. 특히 아동문학 작품집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는 이러한 아동 교육의 목표와 거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작품집이었다.

셋째, 4월 혁명문학의 주된 창작 매체는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의 기관지 월간 『조선문학』과 주간 『문학신문』이었다. 단행본 매체의 경우에는 훗날 작가들이 개인 시집이나 합동 작품집을 간행하면서 혁명 당시에 쓰여진 문학적 성과를 고스란히 수용하는 양상을 띠고 있었다.

넷째, ‘중학교 기술학교 학생용’으로 발간된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는 북한 아동들의 정치 사회화를 겨냥한 문학교육 텍스트로서, 당시 당의 이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발간한 작품집이었다. 여기에는 시 8편(석광희, 류연옥, 김경태, 우봉준, 백 하, 김동전, 윤복진, 최석승), 소설 1편(원도홍), 오체르크 1편(조병조), 아동극 1편(최복선), 희곡 1편(김갑석)을 수록하였다.

남북한의 체제를 비교함으로써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시각과 미국을 비판하고 남한의 부정부패와 계급갈등을 폭로하는 내용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남한의 항쟁 주체들은 천리마 형상을 강조했던 창작기풍을 반영하듯 ‘천리마 기수’로 형상화되고 있었으며, 남한 사회와 미국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비속어의 사용이 두드러졌다. 이처럼 4월혁명을 노래한 북한의 아동문학은 사회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학습시키는 정치사상 교육담론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동안 북한문학 연구는 문학사적 조망에서부터 문예이론, 주제론, 개별 작가·작품론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성과를 축적해 왔다. 그런데도 북한문학의 속살을 두텁게 해 줄 1차 문학사료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남북한 통합문학사를 서술하기 위한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하다. 자료의 부족은 본격적인 연구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 글 또한 월간문예지 『아동문학』과 『청년문학』 등의 잡지 매체, 교과서, 단행본 시집 매체 등의 중요한 간행물을 제대로 확보했다면 4월 혁명문학의 실상과 위상을 보다 깊고 넓게 고찰할 수 있었을 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북한문학의 환경과 현상을 제대로 조망해 내기 위해서는 1차 문학사료를 확보하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4월혁명, 4월 혁명문학, 북한, 북한문학, 천리마 시대의 문학, 아동문학,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 아동교육, 문학교육, 정치사상교육

참고문헌

1. 일차 자료

- 『남녘땅에 기'발 날린다』, 평양: 아동도서출판사, 1960.9.15.
석광희, 『결전의 길로』, 조선문학예술총동맹출판사, 1963.
전초민, 『건설의 나날』,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1.
종합시집 『그날을 위하여』, 조선작가동맹출판사, 1960.4.30.
당창건 15주년 기념 동시집, 『당에 드리는 노래』, 평양: 아동도서출판사,
1960.9.30.
『문학신문』, 『조선문학』

2. 이차 자료

- 김성수 엮음, 『북한 『문학신문』 기사목록(1956~1993)』, 한림대 아시아문
화연구소, 1994.
김일성종합대학, 『조선문학사』 4,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1983.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문학과지성사, 1994.
김종희, 『북한문학에 나타난 마산의거와 4월혁명』,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0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07.4, 5~25쪽.
남상권, 『북한판 4·19소제 소설의 대남인식』, 『한민족어문학』 제49집,
한민족어문학회, 2006.12, 315~348쪽.
류 만, 『현대조선시문학연구(해방후편)』, 사회과학출판사, 1988.
박종원·류 만, 『조선문학개관』 II, 사회과학출판사, 1986.
사회과학원, 『문학대사전』 1~5권, 사회과학출판사, 2000.
이명재 엮음, 『북한문학사전』, 국학자료원, 1995.
이순욱, 『4월혁명시의 매체적 기반과 성격 연구』, 『한국문학논총』 제45
집, 한국문학회, 2007.4, 365~407쪽.

<Abstract>

The April Revolution and Children's
Literature of North Korea
- Focusing on *A Flag is Flying in the South*

Lee, Soon-Wook

North Korea defines the April Revolution as "the April People's Uprising", "the April 19 People's Uprising" or "the April 19 Uprising" and recognizes it as a massive struggle against the United States and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of South Korea and a historic expression by South Koreans of their desire for a national reunification. This paper aims to explore how the April Revolution is described in children's literature of North Korea by focusing on *A Flag is Flying in the South* (Children's Books Publishing Company, September 15, 1960), a collection of children's literature praising the April Revolution.

First, the 1960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the Cheollima (Flying Horse) Movement in the history of North Korean literature. The main subject of the literary works during this time was to create an image of a leader, establish a system of socialism, reflect realistic aspects of the Cheollima Movement, embody people's revolutionary struggle and seek ideologies for national reunification. Distinctively, many works to describe the April Revolution of South Korea were created. Various types of literature regarding the Revolution including poems, political discussions, essays, plays, critics, and children's literature were

produced as opposed to South Korea. Mass produced in North Korea through such official papers as *Joseon Munhak* and *Munhak Sinmunor* separate books, the literary works on the April Revolution focus on disclosing the anti-humanitarian aspect of the South Korean society and describing heroic behaviors and a fighting spirit of the public. In other words, the April Revolution was utilized by the North both as an opportunity to publicize the superiority of the North Korean regime and as an educational means to enhance revolutionary spirit of the residents, to criticize the United States and the Lee Seung-man administration.

Second, it was effective for the North Korean regime to turn to children's literature, which served as a vehicle of political propaganda, in developing and internalizing its ideologies. Children's literature in North Korea faithfully followed these ideologies, so the anti-imperialism sentiment, the criticism of South Korea's Lee Seung-man administration and the laudation for socialism were prevalent in the literature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60s. A case in point is *A Flag is Flying in the South*, which is North Korea's the only revolutionary literature collection describing the April Revolution in the 1960. This children's collection can be seen as a educational book meticulously prepared on the literary educational level unlike other literary works published in papers.

Third, *A Flag is Flying in the South* contains eight poems for children, one ocherk, one play for children and one drama. These works mainly depict the tyranny and repression by the US imperialism, the exposure of the anti-humanitarian situation in South Korea and heroic struggles of the general public. It is consistent with

the main subject of the Cheollima literature that the resistance and the anti-humanitarian aspects of the South Korean society should be revealed in contrast to North Korea's socialism. The Cheollima Movement is a part of efforts to preempt the revolution against the powerful class i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a wide range of areas including ideologies, technologies, culture as well as economy. In this context, the characters of South Korean protests in this collection can be considered "jockeys of Cheollima(Flying Horse)." Therefore, *A Flag is Flying in the South* served as children's literature textbook for political propaganda and was a result of meeting the demands of the North Korean literary circles to create literary works on the April Revolution of South Korea.

Key Words : April Revolution, Literature on April Revolution, North Korea, North Korean Literature, Literature on Cheollima(Flying Horse) Movement, Children's Literature, *A Flag is Flying in the South*, Children's Education, Education on Literature, Political Propaganda